

“진실 향한 첫삽... 암매장 희생자 유해 찾을 것”

5·18기념재단, 광주 북구 효령동 야산서 발굴 개토식 시민 제보로 대상지 특정... 15명 투입 내달까지 작업

“46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1980년 5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행방불명자의 유해를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기사 10·16면

13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됐다.

5·18기념재단과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은 이날 광주 북구 효령동 산 143 일원에서 ‘5·18 희생자 암매장 추정지 개토식’을 열고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개토식은 양재혁, 윤남식, 윤복현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정지 발굴 조사를 알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암매장 추정지는 과거 효령공동묘지로 사용된 곳이다. 발굴은 전체 면적 2140.8㎡ 가운데 암매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000㎡를 대상으로 진

행된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곳은 지난해 5월 시민 제보를 통해 파악됐다.

암매장 추정지 인근 주민인 제보자는 “5·18이 끝나고 버스가 다니기 시작한 날, 효령동 공동묘지 인근에서 모내기를 하던 중 균용트럭에서 내린 군인들이 피 흔적이 있는 포대를 산비탈로 옮기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단은 5·18 당시 계엄군 면담과 전문가 조사 등을 거쳐 암매장 추정지 위치를 특정했다. 계엄군 입장에서 일반적인 장소보다 공동묘지에 희생자 시신을 암매장하는 것이 심리적 저항감이 덜했을 것이라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또 인근에 31사단 사령부가 위치한 점도 해당 장소를 추정할 배경으로 꼽혔다.

조사단은 암매장 추정지에 유적 조사 방식인 트렌치(사굴 조사 구멍)를 설치한



13일 광주 북구 효령동 일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암매장 추정지 발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해당 부지는 과거 효령공동묘지로 사용된 곳으로 현재도 139기의 봉분이 남아 있으며 지난해 시민 제보를 통해 암매장 가능성이 제기돼 발굴 대상지로 확정됐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뒤 삽과 호미 등을 이용해 흙과 잡초를 걷어내며 유해를 발굴할 예정이다. 트렌치 설치의 지하 유해 존재 여부와 과거 매립 흔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조사단은 1.5m 간격으로 참조를 파는

뒤 삽과 호미 등을 이용해 흙과 잡초를 걷어내며 유해를 발굴할 예정이다. 트렌치 설치의 지하 유해 존재 여부와 과거 매립 흔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조사단은 1.5m 간격으로 참조를 파는

다. 조사에는 조사관 5명(상주 조사관 3명)과 작업 인력 10명 등 총 15명이 투입된다. 유해 발견 시 정밀 발굴 조사와 DNA 감식을 거쳐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암매장 추정지 발굴은 국가 폭력 속에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희생자들의 흔적을 찾는 과정으로,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어 “역술하게 쓰러져간 영령들의 진실이 밝혀지고 다시는 이 땅에 국가 폭력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숨겨진 진실을 한 걸음씩 밝혀내 행방불명자 유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복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 광주의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랜 세월 묻혀 있던 진실을 찾기 위해 첫 삽을 뜬다”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을 찾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우리의 약속이자 다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어디에 계시는지 끝까지 찾고 끝까지 밝히겠다”며 “이번 발굴을 통해 행방불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한 맺힌 영령들 또한 존엄과 명예를 되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계획범죄 가능성 무게

스토킹 전력·사전 정황 주목... 오늘 검찰 송치·신상 공개

여고생을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장모씨(24)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우발 범행이 아닌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장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공기계 1대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과거 흉악범죄 사례나 모방 범죄 관련 자료를 검색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교생 A양(17)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 다른 고교생 B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 범죄를 따라 한 모방범죄보다는 피의자의 독자적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포렌식 과정에서 범행 전후 이동 경로와 휴대전화 사용 흔적 등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료 일부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스토킹 전력도 계획범죄 가능성에 힘을 실어 준다. 장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장씨는 타 지역 이주를 준비 중이던 피해 여성에게 “광주를 떠나지 말라”며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이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

는 고소장도 제출했다. 경찰은 장씨가 성범죄 고소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함께, 신고 이후에도 피해 여성 주거지 주변을 배회한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당시 흉기 등을 소지했는지, 실제 범행을 준비했는지 등을 확인하며 살인예비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피해 여성이 이후 광주를 떠나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는 않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범행 대상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장씨가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었고 자살을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만으로 우발 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상당수가 실제로는 흉기 준비, 동선 탐색, 배회 등 사전 행동을 거친 계획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최근 이상동

기 범죄 82건을 분석한 결과, 68.4%에서 범행 준비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근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해서 모두 총동적이라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며 “흉기 준비 여부와 특정 지역 배회, 사전 갈등 관계 등은 계획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분노와 집착, 사회적 고립이 결합된 상태에서 특정 사건이나 개인적 위기가 촉발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수감 중인 장씨는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광산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광산경찰서 2층 어룡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백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14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광주 지역 첫 신상 공개 사례다.

임영진 기자 looks@

여고생 피습 현장 일대 환경 정비한다

광산구, CCTV 5대 설치 검토...수목 제거도

광주 광산구가 여고생 살인사건이 발생한 월계동 일대에 CCTV 설치와 가로등 조도 개선 등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정비에 나선다.

13일 광산구와 광산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사건 현장 일대에 대한 범죄 안전 진단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에서는 이번 여고생 살인 사건을 포함해 총 35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강력범죄 1건, 교통범죄 10건, 생활범죄 24건 등이다.

특히 사건 현장 주변에는 보안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수목이 빛을 가리면서 인도 조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범용 CCTV는 2013년 설치된 1대뿐이었고,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범죄 예방과 대응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인근 학교 방향 인

도에는 보안등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CCTV 설치를 요구해왔지만, 대로변이라는 이유 등으로 우선순위에 밀려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는 광산경찰청을 수용해 현장에 CCTV 추가 설치와 수목 정비, 조도 개선 등 환경 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상벨이 함께 설치되는 양방향 CCTV 5대 설치를 검토했다.

비상벨이 작동하면 광주시 CCTV 통합 관제센터와 연결되는 방식이다.

다만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최종 설치 위치와 대수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 조도가 취약한 전자공고~보훈병원 방면 구간에도 수목 정비와 함께 가로등 추가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KH MEDICHECK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60415-중-211304호

건강검진

매일 체크 ✓ 행복 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